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대마도

조선시대 고지도에 나타난 대마도

글 | 오상학(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조선 전기 대마도에 대한 인식은 신라 이래 우리의 영토이거나 조선의 동쪽 울타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마도가 과거 우리의 영토였다는 고토의식(故土意識)은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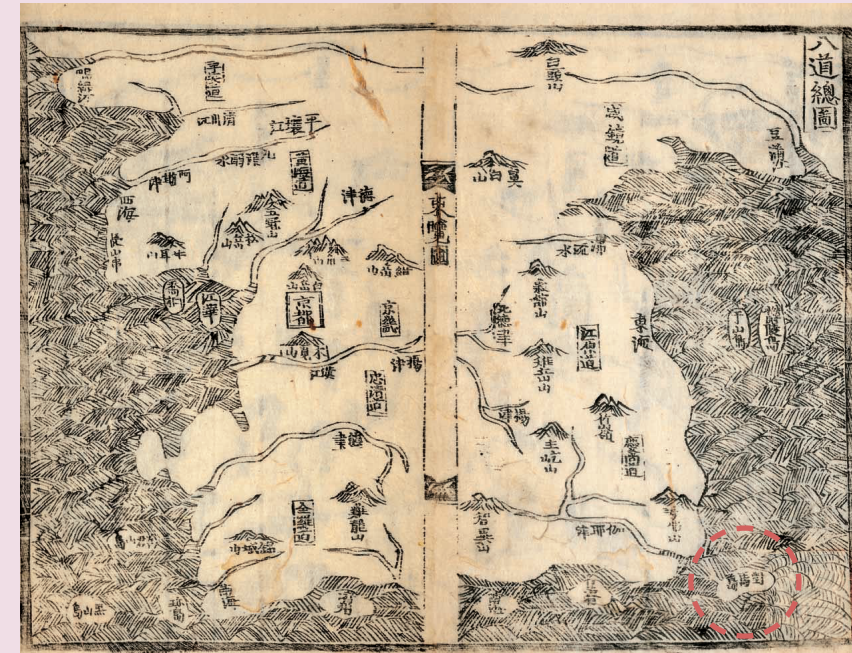
조선 전기 지도의 대마도

세계지도와 조선전도의 대마도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은 고대부터 활발하게 행해졌으나 현존하는 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전의 대마도 인식을 볼 수 있는 지도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한정하여 대마도의 인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조선 전기 대마도에 대한 인식은 신라 이래 우리의 영토이거나 조선의 동쪽 울타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마도가 과거 우리의 영토였다는 고토의식(故土意識)은 관념적인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고토의식과 더불어 조선의 동쪽 울타리라는 변방(藩屏)의식은 현실에 바탕을 둔 관념으로 조선시대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녔던 의식이다. 영토적으로는 일본에 속하지만 일본 정부의 명령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대마도의 조·일 양속성은 조선시대 조선과 대마도 관계를 특징 지워주는 고유한 특성으로 메이지 유신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경역(境域)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대마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조선시대의 지도에 반영되는데, 세계지도나 전도, 도별도, 군현도 등 다양한 지도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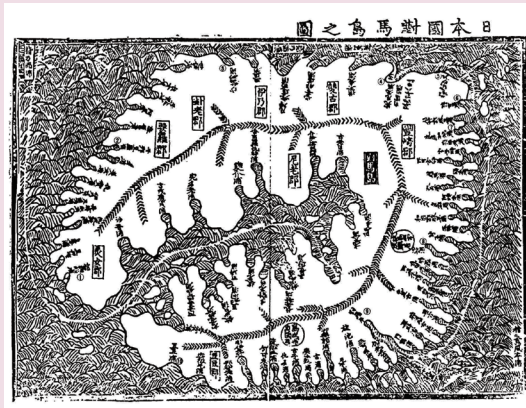
조선시대 지도에 대마도가 최초로 표현된 사례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볼 수 있다. 일본 류우코쿠 대학에 소장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보면 대마도는 일본과는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해안 가까이에 그려져 있다. 동서로 길쭉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서쪽 해안은 깊숙하게 만입된 모습을 띠고 있다. 아소만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북보다는 동서가 긴



● 『동람도』 팔도총도의 대마도

형태이다. 이러한 대마도의 모습은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다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사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원본에도 똑같이 그려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전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동람도』의 팔도총도를 들 수 있다. 팔도총도에는 대마도의 지도가 한반도의 동남쪽 해안에 그려져 있다. 동서로 기다란 형상으로 흑산도보다 한반도에 더 가깝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대마도의 모습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것보다 좀 더 소략하다. 아울러 대마도의 내부 지명도 없다. 이는 지도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섬들도 매우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된 지리지의 팔도총도에 대마도가 그려졌다는 점은 대마도의 양속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본문의 경상도 동래현 산천조에 대마도가 수록되어 있다.



●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

조선 전기 대마도에 대한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도는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대마도 지도이다. 『해동제국기』는 1443년(세종 25)에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다 온 신숙주가 1471(성종 2)년 왕명에 의해 편찬한 것으로 일본의 지세와 국정(國情), 교빙왕래(交聘往來)의 연혁, 사신접대 방법 등을 기록한 책이다. 책의 앞 부분에는 일본지도를 비롯하여 대마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 지도의 제목은 ‘일본국대마도지도(日本國對馬島之圖)’라고 표기되어 대마도가 일본에 소속된 지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도에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해안선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포구의 표시가 상세하다. 산지는 조선의 전통적인 연맥식 표현 방법으로 그려져 있다. 대마도의 8군에 소속된 82개의 포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포구의 지명이 우리나라 한자음의 음과 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자적인 조사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지도의 대마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의 대마도

조선 후기의 지도에서 대마도가 수록된 지도의 또 다른 흐름으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을 들 수 있다.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의 형상은 이전 『해동제국기』의 지도와는 달리 남북으로 다소 긴 형상을 하고 있고, 서쪽의 아소만은 만보다는 하천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일본계(日本界)’라고 표기를 하여 일본의 영역 내부에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일본 본섬과 동일한 색채를 사용하여 일본의 속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다분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시기 대마도의 양속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본섬과의 접촉이 심화된 사실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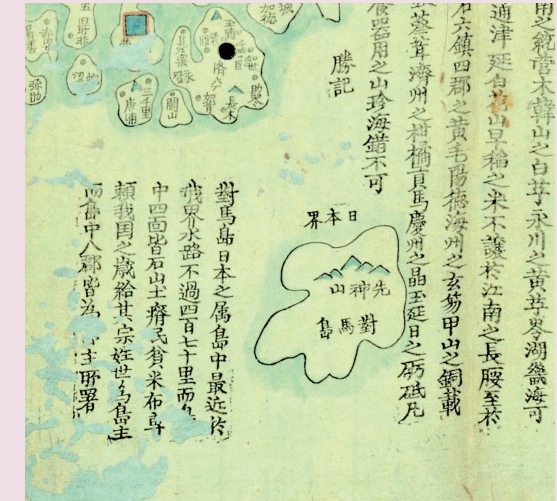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정상기의 『팔도분도』에서도 확인된다. 정상기의 『팔도분도』 사본의 경상도 부분에 그려진 대마도 모습은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와 흡사하다. 천신산이라는 산 이름이 표기되어 있고, 수로로 480리 거리라는 주기도 있다. 무엇보다 대마도라는 지명 옆에는 ‘일본지(日本地)’라 하여 일본 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현실에 기초한 대마도 인식은 『동국지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표현된 대마도



● 『도리도표』 전도



● 『도리도표』 전도의 대마도 부분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세기 목판본 『도리도표』에 수록된 팔도전도에도 대마도가 표현되어 있다. 대마도의 모습은 비교적 소략하고 대마도 북쪽으로 ‘일본계(日本界)’라는 표기가 있다. 그 옆에는 대마도에 대한 주기가 있는데,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마도는 일본의 속도(屬島) 가운데 우리나라 국경에 가장 가까워 수로로 470리에 불과하다. 섬의 네 면이 모두 돌산이고 땅이 척박하여 백성들은 가난하다. 미포(米布)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주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종씨(宗氏)가 대대로 도주(島主)가 되었다. 섬은 여덟 개의 군(郡)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도주가 관할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도를 일본의 속도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조선에 의존하는 양속성도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속관계가 악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마도의 유일한 지명으로 산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천신산(天神山)을 선신산(先神山)으로 잘못 표기하는 오류도 보이고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지도는 19세기 중엽 무렵에 제작된 목판본 『해좌전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도 전체적인 모습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다. 지도에는 대마도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의 모습과 달리 동서로 길게 그려져 있다. 아소만이 흡사 강처럼 표현되어 있다. 뱃길을 검은 선으로 표시하여 수



● 『해좌전도』의 대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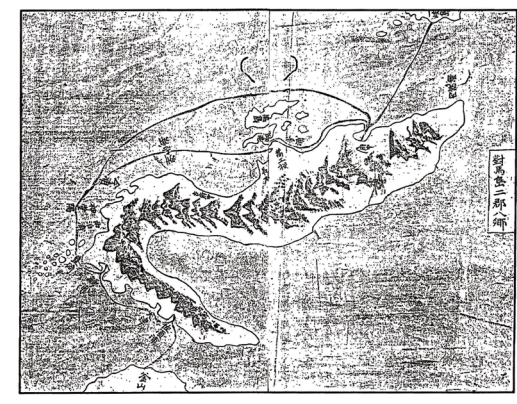


● 「각국도」의 대마도 지도



● 「해동삼국도」의 대마도

“ 통신사행을 통해 입수한 최신의 대마도 지도는 조정에 보관되어 이용되기도 했고 일부는 개인의 저서에 실리기도 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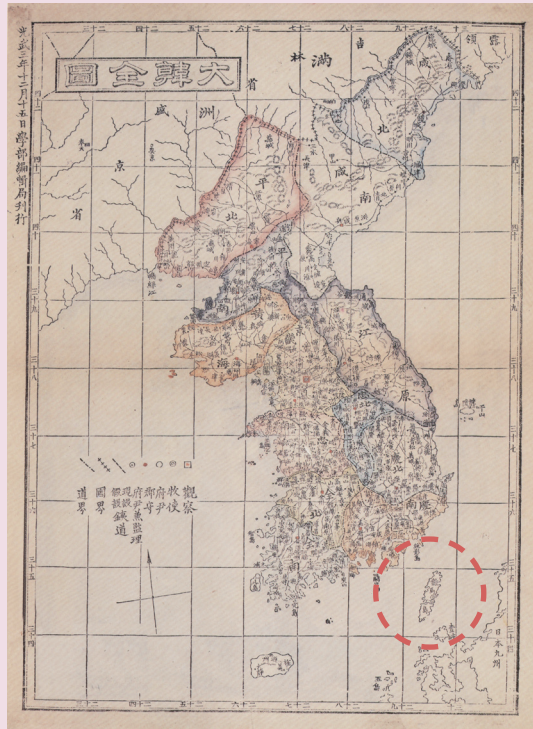
● 「화국지」에 수록된 대마도 지도

로 470리라 표기하였다. 대마도의 유일한 지명으로 산 이름을 표기하였는데, 앞서의 『도리도표』 지도에서처럼 천신산(天神山)을 선신산(先神山)으로 잘못 기재한 오류가 보인다. 대마도 옆에는 ‘입일본 직저일기도(入日本直抵一歧島)’라 하여 양속관계에 입각하여 대마도를 표현하고 있으면서 대마도를 일본과 분리하여 보려는 경향도 파악되고 있다. 대마도 아래쪽 여백에는 대마도에 관한 지지(地誌)적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신증동국여승람』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대축척의 대마도 지도
 조선전도에 표현된 대마도 인식은 양속관계에 기초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에서는 현실에 토대를 둔 인식의 흐름도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를 통한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최신의 대마도 지도를 입수하여 대마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교류는 종전 이후 불과 수년 만에 재개되었다. 1607년(선조 40) 국교 회복 교섭이 타결되어 조

선에서 회담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라는 외교사절이 일본으로 파견되었고, 1609년(광해군 1)에는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되어 일본 및 대마도와의 통교·무역에 관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통신사의 파견이 계속되었는데, 1811년(순조 11)의 신미 통신사를 끝으로 조선 후기에만 총 12번의 통신사 파견이 있었다. 통신사의 여정은 반드시 대마도를 거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신의 대마도 지도를 입수하여 조선으로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도의 대표적인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각국도(各國圖)』의 대마도 지도이다.
 지도의 규격은 가로 108cm, 세로 48cm로 국내에 현존하는 대마도 지도로는 가장 크다. 지도에는 대마도의 모습이 이전의 지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전의 대마도 지도는 하나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이 지도에는 1672년 수로의 굴착으로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대마도의 8향(鄕)과 각 향에 소속된 촌락이 색채를 달리하여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포구를 이어주는 연안의 향로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각 포구에는 포구의 좌향과 배를 정박할 때의 방향까지

도 기재되어 있다. 마을에 있던 신사의 모습도 표시되어 있는데 붉은 색으로 도리 형상을 그려 표시한 점이 이채롭다. 이 지도는 대마도의 관에서 제작하여 활용했던 지도로 보이는데 현재도 이와 유사한 지도가 남아 있다.
 통신사행을 통해 입수한 최신의 대마도 지도는 조정에 보관되어 이용되기도 했고 일부는 개인의 저서에 실리기도 했다. 원중거(1719-1790)의 『화국지』에도 대마도 지도가 실려 있는데, 제목은 ‘대마도이군팔향(對馬島二郡八鄕)’이라 되어 있다. 앞서 검토한 대축척의 대마도 지도와도 다르고 이전 시기의 대마도 지도와도 다른 모습이다. 섬이 두 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되어 있고, 서쪽으로 만입된 형태를 띠고 있다. 부산에서 좌수포(佐須浦)를 지나 부중(府中)인 지금의 이즈하라까지 이르는 해로가 그려져 있고, 경유하는 포구도 기재되어 있다. 앞서 검토한 국립중앙도서관



● 『대한전도』의 대마도



● 『대한전도』의 대마도 부분

소장본과 비교하면 소략한 느낌을 준다. 이 지도는 원증거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덕무의 『청령국지』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통신사행을 통해 도입된 최신 대마도 지도는 이후 지도제작에 활용되게 되는데, 규장각 소장의 『해동삼국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증보했던 정후조(1758-1793)가 1780년대 이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표지에는 ‘일본조선유구전도(日本朝鮮琉球全圖)’라 되어 있고,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의 만주 지역과 북경, 동부 연해지역, 대만의 서쪽 해안, 유구, 일본 등이 그려져 있다. 세로 248cm, 가로 264cm의 대형 지도로 일본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의 한양에서 사방 각지에 이르는 육로와 해로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동해에는 백리척(百里尺)도 그려져 있다.

지도의 대마도 부분을 보면 이전 시기 전도에서 보이는 대마도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남북으로 기다란 형태로 실제에 훨씬 가깝게 그려져 있으나 여전히 하나의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 부산에서 부중(府中)에 이르는 해로가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다. 경유하는 포구가 표시되어 있는데, 천제산(淺弟山), 홍엽산(紅葉山) 등의 다른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산의 명칭과 이즈하라에 있는 서산사(西山寺)도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상의 변화는 대마도에 대한 최신의 지리 정보를 통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 지도의 대마도

근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국내 정세의 변화는 조선의 전통적인 대마도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신 정부는 외교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는데, 1869년 판적봉환(版籍奉還)이 이루어져 대마번(對馬藩)은 이즈하라번(嚴原藩)으로 개칭되었다. 동시에 대마도주 종씨의 조선 외교권이 신정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9월에는 외무성 관리가 대마도로 파견되었다. 1871년에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실시에 의해 대마번은 이즈하라현으로 바뀌어 이마리(伊萬里)현에 합병되었다가 1877년 다시 나가사키(長崎)현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마번병의식(對馬藩屏意識)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899년 현채가 간행한 『대한지지』에 수록된 『대한전도』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대한전도』는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지도로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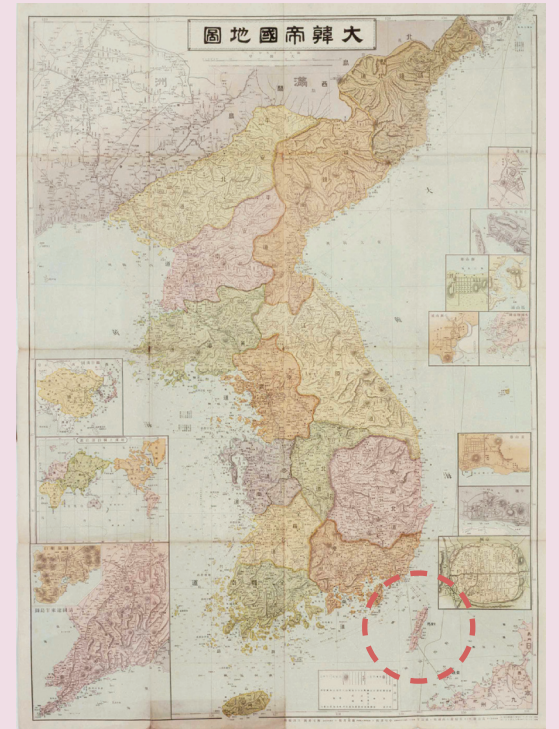
나라의 전통적 지도제작 기법과 서양의 근대적 지도제작 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지도에는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데 경선은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한 편동도수(偏東度數)를 기초로 하였다. 전도에서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지도에서 보이지 않던 일본의 일부가 동남쪽 모서리에 그려져 있다. 여기에 그려진 대마도는 상대마와 하대마로 분리된 형상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해안선 윤곽은 근대적 일본 지도에 표현된 대마도의 모습과 흡사하다. 경상도 지역은 붉은 색으로 채색하였으나 대마도는 일본 본섬과 함께 채색을 하지 않아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전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지도로 『대한제국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1908년 현공립이 제작한 지도로 1899년 학부편집국에서 작성된 『대한전도』보다 개선된 지도이다. 색판인쇄를 하였고 지형에 음영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각 도시의 위치와 해안선이 정확해졌다. 그러나 이 지도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로 만주의 이권을 획득한 이후 여서 남만주 지방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러일전쟁으로 조차한 요동반도가 삼도로 수록되어 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해는 일본해가 아닌 대한해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는 대마도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 근대적 측량에 의해 제작된 대마도 지도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는 일본 본섬과 동일한 색상으로 채색하여 일본의 영토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마도의 해안선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주요 포구의 지명도 기재되어 있다. 대마도의 위치도 경위선을 고려하여 해당 위치에 배치시켰다. 해협의 명칭도 표기되어 있는데, 대마도와 우리나라 남해안 사이를 ‘대한해협’, 대마도와 일본 본섬 사이를 ‘대마해협’으로 표기했다. 앞서의 『대한전도』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로 평가된다. 대마도는 더 이상 조선의 고토도 아니고 조선의 변병(藩屏)이 아닌 일본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IN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특별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제국지도』의 대마도